

[H 갤러리]

JULY COLLECTION

7. 1. – 7. 31.

PHILIP. HAN.

7. 12. 화.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다.” 논어 위정 편 17.

책을 읽으면 공부를 해야겠다 싶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싶다. 역사 책을 읽으면 틈틈이 기록하라 하고 철학 책을 읽으면 사유하라 하고 자기계발 서를 읽으면 목표를 세우라 하며 경영서를 읽으면 당장 회사를 설립해야 할 것 같다. 공부의 길이 너무 많다.

한데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느냐 자문하면 순간 멍해진다. 평소 깊이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부 목적이며 까닭을 더 해 물으면 지지배배 지지권이 즐거운 세 치 혀가 얼음에 닿은 것처럼 냉랭하다. 다만 공부하는 목적과 까닭 없이 하는 공부만큼 허망한 일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은 나름 희망적이다. 하지만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금 필요한 내 공부는 무엇일까. 뒹굴뒹굴하다 짜증도 나고 해서 집 밖으로 나왔다. 용무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 나온 참이 아니어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그 뒤를 쫓아 그냥 걸었다. 일이 천 보 즈음 걸으니 그럭저럭 걸을 만하다. 한데 지루하다. 재밌고 새로운 거리가 많으면 좋겠다 싶어 이번에는 팟캐스트를 켜고 걷는다. 걷는 일이 덜 지루하고 수월도 하다. 동무와 얘기하며 걷는 착각이 이런 기쁨을 내게 안겨주는 가 싶다. 동네 한 블록을 도는 일이 순식간이다. 한데 방금 전 내가 어디를 갔다 왔지 거기는 왜 갔다 온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공부에 대한 답답함과 짜증을 좀 풀어 볼 심산으로 나온 일인데 옆친 데 뒹친 격으로 이 의구심은 당황스럽다.

적어도 한 가지 일은 풀었다. 짜증 말이다. 한데 공부는 무엇이고 왜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 분명 방금 내가 어딘가를 다녀오긴 했는데 갔다 온 그곳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둔함이 이 갈증의 또 다른 궤라면 궤이다. 하지만 내가 다녀온 곳에 대한 일은 걷기 기록 어플리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 순간 공부도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꽤 괜찮은 아이디어다. 남은 일은 어떤 공부를 기록할 것인가이다.

우선 여기저기 찾고 탐문한 결과 기록의 대명사는 역사였다. 그중 으뜸이 사마천이 쓴 사기였다. 곧바로 책을 빌리고 전문가 강연을 찾았다. 수없이 많은 정보가 유성우처럼 쏟아졌다. 갈증에 단비가 내렸지만 성에 차지 않았다. 바로 그쳐 버렸으니까. 그 까닭은 뭘까. 생각해 보니 두 가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알게 들어가서 알게 나온 탓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를

지식으로만 대한 탓이었다.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말이다. 역사를 외우는 이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놀라웠고 창피했다.

얕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나와야 한다는 한국사마천학회 김영수 교수 말씀을 곱씹었다. 공부는 모름지기 그래야 할 것 같다. 또한 공부는 마음을 써서 하는 일이었다. 그래야 선하고 논리 정연한 공부가 된다. 사기를 쓰기 시작한 사마천의 비장함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공부를 쫓는 데 부끄럼 없이 공부의 길을 가야 재밌고 즐겁기 때문이다. 사마천이 백이와 숙제의 고상함을 두고 각종기지(各从其志) 즉, 저마다 자기 의지에 따라 행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얕게 공부를 시작한다. 또 문제를 만났다. 깊이 파고 나오는 일이 설익은 땀감을 입에 댄 느낌이다. 몸이 의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 일은 어찌할까. 피를 냈다.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생기 듯 얕게 들어선 일과 깊이 파고드는 일 두 점을 이어주는 뭔가를 찾은 끝에 만보 걷기를 끌어왔다. 걸으면서 읽고 보고 듣는 것이다. 간간이 땀을 말릴 겸 커피를 앞에 두고 종아리의 고단함을 식히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여겼다. 이 일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좀처럼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 세상 속으로 빠진다. 해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고 모르는 그 경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공부라는 소크라테스 말을 위안 삼았지만 역시 속 시원하지 않다. 이 일은 또 어찌할꼬.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게다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두 질문에 무릎을 탁 쳤다. 바로 이것이다. 얕게 들어가서 깊이 파고 나오는 길목에 질문의 등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만보 중간 즈음 자리에서 슬한 질문을 쏘아 올리고, 돌아오는 길 위에서 얻은 답변을 책상에 앉아 오늘 내 공부를 촉발한 사건은 무엇이었고, 어떤 것이 궁금했고 스스로 찾은 답은 무엇인지를 글로 써 기록으로 남기면 근사한 일이 되겠구나 싶다. 느낌이 팍! 전율이 좌르르

흘렀다. 바로 이 글이 그 공부는 무엇인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알리고 있다. 걷고 읽고 보고 듣고 질문 뽑고 답을 내고 글로 남기는 이 철성이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기개를 높이는 내 공부 목적이고 까닭이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논어 위정 편 17).

7. 14. 목. 毛遂自薦



사마천 사기 평원군우경열전

전국 7웅이 할 거 하던 시절, 중원의 맹주 진秦나라가 조趙나라를 침략했고, 수도 한단을 포위했다. 풍전등화 처지인 조나라는 초楚나라와 합종을 피하고자 평원군에게 사신의 임무를 맡겼다. 사신의 규모는 20여명, 평원군은 19명은 선발했지만 나머지 한 명을 누굴 뽑을까 고심하고 있던 어느 날, 모수毛遂라는 인물이 자신을 추천한다며 나섰다. 난데없는 등장에 당황한 평원군은

"무릇 현명한 선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비유하자면 주머니 속의 송곳과도 같아서 그 끝이 금방 드러나는 법이오. 지금 선생께서 내 문하에 3년이나 머무르셨으나 주변에서 선생을 칭송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나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는 선생께서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이오. 선생께서는 능력이 없으니 남아있으시오."

"신은 오늘에야 주머니에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제가 일찍부터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끝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몸통 전체가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모수의 말솜씨에 혀를 내두른 평원군은 모수를 스무 번째로 발탁했고, 초나라로 향했다. 하지만 평원군과 초왕 간 합종 협상은 해가 뜨고 중천을 지날 때까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담보 상태였다. 모수가 회의장에 닿는 계단을 뛰어올라 칼자루를 손에 쥐고, 초왕에게 일장연설을 퍼부었다.

요컨대 탕왕(湯王)은 70 리의 땅으로 천하의 왕이 되었고, 주문왕(周文王)은 백 리의 땅으로 제후를 신하로 삼은 것은 병사 수 때문이 아닌 형세의 위엄이라며 사방 5천 리 땅과 백만 병사를 거느린 초나라는 패왕(霸王)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하는 것은 백 세대에 걸친 수치임을 초왕은 모르고 있는 것이며, 이번 초나라와 합종은 실체는 이런 초나라를 위한 일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모수 자신이 나섰는데 어찌 초왕은 자신의 행동을 꾸짖습니까라며 일갈했다.

초나라와 합종은 성사됐고, 초나라로 돌아온 평원군은 '모 선생의 세 치 혀는 백만 병사보다 강했다며 감히 다시는 인재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서 했다고 한다. [사기 평원군우경 열전 중 모수자천 요약]

이 얘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바로 모수자천 毛遂自薦이다. 힘들고 고된 일, 고생이 뻥히 예상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추천하다는 의미로 쓴다. 이 사자성어를 꺼내 든 까닭은 이렇다.

곧 하반기 채용 시즌이 다가온다. 장마와 폭염이 하루에도 서너 번 앞치락뒤치락 계속되는 이런 날은 공자 님도 정신이 사나울 것이다. 하지만 집중해야 할 목표가 있는 그들에게는 이 여름 한 때 한 때가 금이야

옥이야 써야 할 때이다. 내 입장에서 보면 MZ 세대이다. 이들에게 이 모수자천 얘기가 너무 나댄다는 의미로 쓴다는 최근 현상에는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취업 준비 중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열 중 육칠 할은 지원동기 쓰는 일이라고 답한다. 취업에 성공한 족보를 은밀히 거래하고도 있다는 말은 이 일이 주는 고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한다.

지원동기는 내 능력을 알리는 일이다.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숙련도를 재치 있게 써야 한다. 말은 그럴싸 한 이 일이 어려운 까닭은 지식과 경험,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인재로 한번 써 보라는 배짱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모수자천 고사성어는 바로 이를 알리기 위함이다.

"무릇 현명한 인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비유하자면 주머니 속의 송곳과도 같아서 그 끝이 금방 드러나는 법이오. 지금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지원은 했지만 칭송할 만한 지원자 업적을 본 적이 없고, 나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는 지원자가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이오. 지원자는 능력이 없으니 이제 그만 나가주소?"

지원자를 대하는 면접관 태도가 이럴 때, 대다수는 곤죽이 되고 제 풀이 꺾인다. 이 상황이 혹시 내 사정과 흡사하면 모수자천을 떠 올려 기지를 발휘하길 바란다.

"이번 면접을 통해 그 주머니에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제가 일찍부터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끝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몸통 전체가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운치가 모수자천에 있다. 이 지혜를 MZ 세대가 잘 활용했으면 한다.

7. 20. 수. 談言微中 亦可以解紛



사마천 사기 골계열전 중 우전 편 [담언미중 역가이해분, 말이 적절하면 다툼도 해결할 수 있다]

12살 감라·甘羅가 자신이 한 번 해 보겠다며 손을 번쩍 들었다. 문신후 여불위·文信侯 呂不韋는 꾸짖으며 말했다. 물러나라! 내 부탁도 듣지 않는 장당·張唐인데 네까짓 것의 말을 어찌 듣는단 말이냐?

진시황제 영정·嬴政 이 장당을 연나라 재상으로 삼고 조나라를 치기 위해 여불위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다. 한데 장당이 이 여불위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 까닭은 이랬다. 연나라로 가려면 조나라를 거쳐야 하는데,

진소양왕 시절 조나라 정벌에 앞장선 장당을 조나라가 암전히 통과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그래서 여불위는 고심이 깊었던 차 감라가 나선 것이었다.

사마천 사기 저리자 감무 열전에 나오는 감라 얘기다. 한국사마천학회 김영수 교수께서는 이 얘기를 감라자천·甘羅自薦 즉, 감라가 자신을 추천하다는 뜻이라고 알려주셨다. 평원군 우경 열전에 등장한 모수자천·毛遂自薦과 같은 의미다. 한데 두 열전 속 여불위와 평원군의 반응은 흥미롭다. 첫 마디가 똑같이 '물러나라!'였기 때문이다. 2천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이 어린 젊은이가 나서는 꼴을 보기가 그렇게 싫은가 보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것이냐!'하는 반응 말이다. 마치 감라·모수 두 사람이 당시의 MZ 세대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상황이 현재 어느 회사 사무실 한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현재의 MZ 세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냥 물러났을까? 아니면 감라처럼 '어찌 신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급하게 야단만 치십니까?'라며 되물었을까. 이 물음에 사마천은 여불위 답변은 생략하고 감라가 장당을 만났다고 기록했다. 감라와 여불위의 문답 보다 감라가 장당을 만나 설득한 일이 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데 이 시각을 현재 MZ 세대와 그 위 세대 간 사정으로 볼 때, MZ 세대가 감라처럼 되물었다면 선배 혹은 팀장 반응은 또 어땠을까? 묘한 신경전으로 이어졌을까 아니면 사마천 기록처럼 감라가 기회를 얻었을까. 한두 마디 더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경으로 감라에게 기회를 줬을 것이다. 그 결과 감라는 장당을 설득했고, 연나라 재상이 되었다. 하지만 감라는 이 일을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하는 계책으로 발전시켰고 성공했다.

딱히 묘책이 없었던 여불위에게 감라는 굴러온 복덩이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불위가 감라를 꾸짖고 물리쳤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진시황이 과연 전국 통일을 했을까? 모를 일이다. 이 대목에서 여불위의 안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여불위는 누구인가? 어린 시절의 진시황을 십여년간 돌본 공적으로 문신후가 된 인물이다. 그런 여불위가 감라의 되받아치는

말씀씨는 당돌하지만 어떤 촉을 느낀 것이다. 게다가 상인 출신답게 감라에게 큰 배팅을 했고, 결과적으로 대박을 쳤다.

'담언미중역가이해분 · 談言微中亦可以解紛'이라는 말이 있다. 사기 골계·滑稽 열전 중 우전 · 優氎과 진시황제 사이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사마천이 우전을 칭송하는 말로 남긴 기록이다. 요컨대 말에 요점이 감추어져 있어도 어려움은 풀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날, 진시황이 황제 수렵림·狩獵林을 동서로 넓히고자 했다. 그때 우전이 나섰다. "좋은 일입니다. 그곳에 여러 짐승들을 길러서 동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사슴들은 그 뿔로 적을 막아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진시황은 껄껄 웃었고, 수렵림을 넓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님을 깨닫고는 그 일을 중단했다. 사리를 따져 간언·諫言 했다면 진시황은 분기탱천했겠지만, 익살스러운 비유로 쓸데없는 일을 막은 우전의 골계미가 드러난 일화이다.

'어찌 신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급하게 야단만 치십니까?'라고 저돌적으로 되묻는 감라의 말에 여불위는 사실 약간의 불쾌감과 또 약간의 부끄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불위는 감라의 반격이 꽤 적절했다고 판단 했는가 싶다. 진시황이 낸 문제를 잘 풀었기 때문이다. 이런 여불위의 태도 역시 '담언미중역가이해분', 이 때는 '말이 적절하면 다통조차 해결할 수 있다'(경향신문. 언격(言格)이 인격(人格) 칼럼. 2012.)로 뜻 풀이하는 것이 더 빛난다. MZ 세대와 소통이 절실한 리더라면 이 고사성어는 칠혹 같은 밤 길을 터주는 달빛 같을 것이다.

Epilog



1930 년 경. Les amoureux en bleu 푸른색의 연인

그림 한 편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다.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그 까닭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더 답답했다. 그 즈음 꽤 괜찮다고 여긴 몸이 웬일!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 마치 진격의 거인 속 그 괴물 같았다. 만보 걷기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들쭉날쭉 했다. 7월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냈었다. 아, 이러다 까뮈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이 되어 가는 듯싶어 빨리 떨치고 일어나겠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던 어느 날이었다.

누군가 내 손목을 잡고 끌고 간 것 같지는 않다. 한데 내 손에 '사마천의 사기 열전' 서너 권이 쥐어 있었다. 딱 거기까지였다. 겉표지를 읽었을 뿐이다. 불쏘시개로도 쓸 수 없다고 여겼다. 불꽃을 틈을 부싷돌은 정작 없는 것일까 체념에 다다를 찰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제해결!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고 명성을 쌓게끔 이끈 주제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트게 만든 매개체였고, 여러 지인이 내게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너무 살갑게 둘러붙어 있어 내가 그이고 그가 나인 양 살았다. 한데 이제는 그 존재를 다시 들춰내 새로 정돈할 시점이 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묘수가 떠 오르지 않아 이방인처럼 굴었다.

사기 열전을 촉매제로 써 볼까 싶었다. 한국 사마천협회 김영수 교수 강독을 들으며 실마리를 찾았고, 미력하나마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판단했다. 문제해결을 잘 하고 싶은 [그대에게] '登高自卑 즉,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사유고연 事有固然 모든 일에는 당연한 이치가 있다'라는 사자성어를 쓰고 읽고 마음 속에서 가다듬자 그림 한 편을 볼 수 없을 만큼 심란했던 내 몸과 정신이 조금씩 일체가 되고 있었다. 푸른 색의 연인(Marc Chagall, 1887 러시아 제국 현 벨라루스 ~ 1985, 프랑스 니스) 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샤갈의 못된 손(?)도 이제서야 발견했다(그의 다수 작품에서 샤갈의 손은 늘 벨라의 허리 부분이 아니었다).

매월 [H갤러리]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작가님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8월 폭염이 잦아들면 어느 새 가을입니다. 사늘한 바람이 달빛에도 묻어나겠네요. 모쪼록 알찬 피서 즐기시고 행복한 8월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